

2025 국제농업박람회, 10월 23일 농기원서 개막

AI 기반 농업 혁신·K-농업 성장 견인 목표

2025 국제농업박람회가 인공지능(AI) 기반 농업 혁신·케이(K)-농업 성장 견인을 목표로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동안 전남농업기술원(나주 산포면) 일원에서 펼쳐진다.

국제농업박람회사무국은 이번 박람회를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고 글로벌 농업 혁신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치를 예정이다. 특히 AI 기반 스마트팜, 농업 자동화 기술, 디지털 농업 솔루션을 통한 혁신 사례 등을 대거 선보인다. 농업과 첨단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행사장은 상생마당전, 농업미래전, 농업산업전, 비즈니스전, 힐링치유전으로 총 5개 전시관으로 운영된다. 전시를 통해 글로벌 푸드테크와 애그테크, 디지털 농업 솔루션 등을 접목한 혁신적 미래농업의 비전을 제시한다. 농업용 로봇(과 드론),

자율주행 농기계, LED 광원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기술 및 스마트팜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이 전시될 예정이며, 관람객은 AI 기반 농업 자동화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청년과 미래세대를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청년창업마켓을 운영해 청년농부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기회를 제공, 실질적 창농 및 정착을 지원하고, '투자 IR포럼'을 통해 투자자와 창농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K-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비즈니스 행사 역할도 한다. 총 15개 나라 50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 간(B2B) 상담회 및 품평회도 함께해 농가의 실질적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2천8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성과 달성이 목표다.



글로벌 농업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 학술대회도 열린다. 푸드테크와 애그테크 산업, K-농업기술 수출 유망과 농업기계 고도화 관련 여러 학술행사를 통해 국내외 농업 전문가가 최신 농업기술 트렌드를 논의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입장권페이백 혜택을 도입해 사전 예매자에게 행사장에서 사용할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현장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전남 주요 관광지 입장권과 연계한 할인 혜택도 마련해 관람객이 박람회 관람 후 전남을 여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행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행사는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이란 주제로 열려 대한민국 농업이 미래를 조망하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 인 기자



전남 농수산물, 중국 청두 식품박람회서 인기몰이 김·유자차 등 4개 식품기업 참가해 100만 달러 수출계약

전라남도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력해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중국 청두 식품박람회(CPDF)'에 참가해 100만 달러 수출계약과 459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중국 청두 식품박람회는 1955년부터 개최된 중국 서부 내륙 최대 규모 식품 박람회다. 매년 40만 명 이상의 바이어와 방문객이 참여하는 만큼 향후 중국 서부 내륙지역 수출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7일까지 3일간 열린 올해 박람회에 전남도는 전남 농수산물품관을 운영했다. 전남지역 참가 기업은 서광식품영농조합법인(유자차), ㈜가리미(구운김·조미김·마른김), ㈜푸른정식품(알로에음료·전복죽·전복김·전복카레), ㈜가보팍스(매추·도라지비빔), 4개 기업이다. 1대1 수출상담, 제품 시식행사 등을 통해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전남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선보였다.

B2B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푸른정식품은 상하이천일무

역유한공사와 조미김, 김자반, 미역 등 100만 달러 수출계약을 했고, ㈜가리미는 하오유(청두)국제무역과 김밥김 12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MOU)을 하는 등 27건, 459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참가 기업을 위해 부스 설치 및 운영 지원, 바이어 매칭 및 상담 통역 지원, 전시품 운송비 지원, 왕복 항공료(50%, 1사 1인) 등을 제공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도왔다. 이번 박람회 참가는 지난해 11월 전남도-쓰촨성 우호교류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행정부지사의 중국 순방 중 고위급 회담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청두 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해 전남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중국 서부 내륙 시장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쓰촨성과의 우호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 활력과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청년농업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농지은행' 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농지 구입, 농지 임차, 스마트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 협의체를 통해 농지은행 관련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청년농업인의 농지은행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청년농 협의체'를 시작으로 '지'의 협의체, 9개 권역 청년농업인과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학계가 함께하는 '중앙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청년농업인 목소리 반영... "농지 지원 강화"

'청년농 협의체' 통해 농지은행 제도 개선 추진

청년농 협의체를 통해서 비 이외 작물만 경작할 수 있었던 공공임대농 농지에 가루쌀 재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꼽힌다.

올해는 청년농업인이 더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 구입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단계를 인상했다.

자부담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2억원 증액한 193억원으로 확대했다. 자부담금이 필요한 '농지매매사업'도

213억원을 늘어난 953억원을 확보했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 2만6700원(㎡당)에서 3만85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농지 임차도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했다. 청년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포털을 통한 농지 공고 일자를 '매주 화요일'로 지정했다.

공사는 농지은행 공공임대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도 내실을 강화했다. 청년농업인 간 공동 영농이

가능도록 스마트팜을 집단화하고 기존에 농지를 소유한 청년농업인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공사는 올해도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소통과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

현재 청년농 지역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에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훈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청년농업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전라남도는 시군,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남도장터, 유통업체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 간담회를 지난 27일 도립도서관에서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9개 유통업체별로 온라인 판매 운영 실적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현황, 2025년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해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전남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머리 맞대

농협 등 유통업체 간담회... 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효과

전남도는 지난해 550억 원이었던 거래 실적을 올해는 1천5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 출하조직을 대상으로 판매자 가입 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 거래 목표액 6천억 원의 25%에 달하는 규모다.

최정훈 참좋은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이용하면 유통비용도 절감되지만, 위탁 수수료가 최대 5%로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수수료보다 2~3% 낮아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산물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전국단위 도매 플랫폼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상품거래가 이뤄지면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되므로 기존 오프라인 거래 시 발생하는 3~4단계의 유통

체계가 1~2단계로 단축돼 유통비용 절감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가격 하락 효과가 있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금액의 0.3%)를 3년간 면제하고, 50만 원 한도로 직배송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단위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참여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도약 돕는다

4월21일까지 육성사업 모집... 맞춤형 성장위해 2년간 최대 2억

전라남도는 성장 잠재력을 지닌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을 4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글로벌시장의 경쟁력을 갖춰 지역경제 주축으로의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남에서 3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25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매출액 기준의 경우 더

많은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3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에서, 올해부터 25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해 신청 문턱을 낮췄다.

또한 매출 증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고용 증가, 수출 비중 증가 등 4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기술인력 역량 강화 지원 등 7개 분야 지원프로그램을 선택해 2년간 최대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팔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매를 곡성